

第144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1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11月28日(月)

場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 1. 聽聞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 1. 聽聞會運營에 관한件 ..... 1面

(10時24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 합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朴昌熙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새로 오신 委員님을 소개합니다.

白南治委員 人事해 주십시오.

○白南治委員 統一民主黨의 白南治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崔二鎬委員 人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二鎬委員 統一民主黨所屬 崔二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聽聞會運營에 관한件

(10時26分)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聽聞會運營에 관한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聽聞會가 인제는 본격적인 케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全 前大統領도 자기가 政權慾으로써 과오를 범했다고 까지 新聞報道에 의하면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려서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은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4日 25日 26日 3日間の 聽聞會를 열기로 되어 있었으나 24日 開議만 하고 各 黨間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고

意見이 합치되지 않아서 成員未達로서 流會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國民을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26日 4黨 幹事들이 모여서 앞으로 聽聞會를 運營하는 문제에 관해서 협의했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辛基夏委員께서 報告해 주시겠습니다.

○辛基夏委員 그간에 두번에 걸친 4黨 幹事會議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11月24日 證人으로 選定된 申鉉禧 李信範 韓尙錫 證人을 12月6日로 연기하고 11月25日 證人으로 選定된 鄭鎬溶 尹興禎 證人을 12月7日로 연기하여 證人訊問을 하기로 하고 11月26日 證人으로 선정됐던 鄭東年 鄭基用 沈載哲 金宗培 證人과 추가로 鄭昇和 證人은 11月30日에 訊問하기로 하되 訊問時間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30日로 정한 것은 임의출석하는 證人에 대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2月6日로 豫定된 崔圭夏 李煥性 蘇俊烈 證人과 12月7日로 豫定된 全斗煥 金玉吉 柳炳賢 崔 雄 證人에 대해서는 12月 중순경에 證言을 듣기로 協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野圈 3黨에서는 5共特委와 文公委員會의 聽聞會와 관련해서 그쪽과도 상당한 기일을 두기 위해서 國會 本會議가 끝나는 12月19日부터 20日 21日까지 연 3日間 聽聞會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民正黨側 幹事께서 그 의견을 듣고 黨內에 가서 論議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數日後에 다시 幹事會議을 열어서 決定하기로 하고 그렇게 提議만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崔圭夏 全斗煥 兩證人에 대한 同行命令狀은 日字가 정해졌을 때 발부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幹事會議의 協議事項을 辛基夏委員께서 報告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聽聞會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朴燦鍾委員 지금 辛基夏委員께서 말씀하신 日程의 計劃에 대해서 제가 무슨 基本的 異議를 提起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議事日程이 聽聞會運營에 관한件이고 그 일환으로 아마 우선 내일 모레 日程과 그 이후의 대개 전개될 日程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우리 光州特委가 해야 할 調查方向 日程 등에 대해서 제 개인의 생각을 이 순간에 말씀드리으로써 先輩 同僚委員들의 이 점에 대한 진지하고 또 그러한 考慮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의 意見에 대해서도 많은 同調 내지는 同意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제 意見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5共非理特委나 言論特委 어느 것이든지 간에 특별히 光州特委에 있어서는 우리가 真相調查를 해야 할 이유가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무슨 司法的 處理에 역점을 둔다기 보다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歷史적으로 정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3個 委員會가 運營하고 있는 聽聞會 運營方式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否定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聽聞會라고 하는 것은 國會의 國政調查權 行使의 한 調查方法입니다. 方法인데 이것이 온 國民도 그렇고 특히 調查에 임하는 우리 國會議員 자신들이 聽聞會 그 자체가 과정이고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部分的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辛基夏委員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다른 特委가 聽聞會를 하고 이것이 TV에 生中繼되고 또 放送局 事情까지 고려

에 넣고 이렇게 해서 日程이 잡혀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저는 우선 集中的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言論에서의 報道와 生中繼 事情 여하에 관계없이 이것을 떠넘겨야 마치고 이 特委가 聽聞會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實況中繼에 이 聽聞會를 맞춘다면 부지하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야 할 證人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特委 委員들도 변경되었으니까 저도 새로운 證人들 또 參考人들을 신청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다만 우리가 이 調查過程에서 國民의 존재를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꼭 요긴한 證人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放送局 事情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全的으로 放送局 事情에 맞추어서 聽聞會 日程을 맞추어서 聽聞會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간까지 아무 調查活動도 안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는 이 光州特委 運營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提案합니다.

첫째로 빠른 時日안에 現場調查를 해서 現場에서 가능한 證人이나 參考人을 신속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聽聞會에 부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 당시의 역할 기능 이런 것으로 다시 분리를 해 가지고 集中的으로 그 日程을 다시 再調整해서 그리고 매일 매일 한다 그리고 聽聞會가 없는 날은 무슨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班을 나누고 積極的인 모습을 보여 가지고 신속히 集中的으로 이렇게 해서 調查日程을 다시 定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과 先輩 同僚委員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다시 正式 委員會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들끼리 懇談會 形式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십니까?

李海瓚委員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지금 朴燦鍾委員께서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좋은 말씀이 계시읍니다.

本委員도 그 동안에 真相調査委員會가 너무 聽聞會에 의존해서 真相調査作業 自體는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聽聞會 自體도 이유 여하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國民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遲延되고 있고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저도 特委의 한 委員으로서 國民들한테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運營에 있어서 지금 朴燦鍾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聽聞會와 실제 現場調査와 또 文書도 대단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청한 資料조차도 지금 안 오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고 온 資料도 信憑性이 없을 만큼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文書도 형식적인 檢證이 아니고 國防關係文書가 많다 라고 한다면 國防部 사람들을 特委에 召喚을 해서 체계적인 文書檢證을 해서 眞僞를 가려내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漏落理由를 분명히 그리고 누락된 日時와 事由와 이런 것을 분명히 가려내는 그런 文書檢證의 節次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戒嚴司令部 狀況日誌中에서 가장 중요한 17日 午後에서 18日 午前에 걸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檢證이 정밀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特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國防關係의 文書 또 나아가서는 全南道廳 내지는 光州市廳 關係文書도 보다 精密檢討를 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文書檢證도 보다 정밀히 할 수 있는 運營方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하나 제가 속해 있는 黨에서도 주장을 하고 다른 黨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委員들이 정밀한 文書檢證이라든가 資料調査를 제한된 시간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難點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2月로 접어들수록 關係... 그 동안의 非民主惡法改廢라든가 다른 常任委 活動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時間上의 難點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國會의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에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專門家를 채용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特別檢事制까지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보다 能動的이고 적극적인 그런 制度를 보완을 해서라도 이 真相을 규명하는 이런 作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런 作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흡한 調査를 통해서 事後處理結果도 또 미흡해질 경우에는 가장 좋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結果가 충실하지 못할 경우는 이와 같은 國民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한 結果가 오지만 歷史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그런 結果를 우리 자신들이 범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관련한 諸般 特委運營에 관련된 보다 충분한 討議가 선행된 상태에서 이런 聽聞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聽聞會 運營에 있어서 여러가지 未備點들이 보완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짜여진 聽聞會 日程에 있어서도 가령 3次 聽聞會에 12月6日字 證人하고 12月7日字 證人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勃發과 그 다음에 事態展開와 事後處理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본 구도를 計劃을 했었는데 그 구도에서 좀 빗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12月6日字에 蘇俊烈證人같은 경우는 1980年 5月22日 下午부터 光州에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나와 있고 반면에 12月7日字에 김옥길이나 유병현證人같은 경우는 事態展開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뒤로 나가 있어 가지고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다 정밀하게 구도에 맞추어서 再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特委에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聽聞會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가 잠깐 되어진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金光一委員께 發言權 드리겠습니다.

우리 幹事會議에서 文書檢證에 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光州現場 檢證하자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懸案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日程이 촉박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으나 時間을 기다리고 해서 그것은 幹事會議에서 곧 모여서 처리할 것으로 우리 사이에 內約이 되면서 일단 여기에 나온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것을 우리도 생각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意見을 提示해 주면 幹事會議에서 그것을 곧 모여서 다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되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金光一委員 말씀하세요.

○金光一委員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朴燦鍾委員이나 李海瓚委員의 의견에도 전부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幹事會議에서 합의한 報告事項을 채택을 한 후에 正式會議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앞으로 光州特委의 調査方法과 日程 등에 관한 意見交換을 한 후에 거기에서 집약된 내용을 幹事會議에다가 委任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30日것은 일단 확정하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金光一委員?

○金光一委員 30日것과 12月6日 7일에 한다는것...

○委員長 文東煥 그것은 異議가 없을테니까 그 다음의 것은 이 자리에...

○朴燦鍾委員 물론 저는 幹事會議 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金光一委員께서도 그렇고 李海瓚委員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우리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30日 정해진 이 證人도 제가 보기에는 現場實況 調査를 우리가 조사 방법으로 채택할 때는 現場에서 물어봐도 더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證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30日 證人도 再調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내가 알아요 幹事會議에서 했지만...

○委員長 文東煥 30日 것은 사실은 여기에 우리 幹事會議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꼭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4黨의 주장을 어느 정도 調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착이 된 것인데...

○朴燦鍾委員 委員長님 그 고충 때문에 無所屬이 仲裁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文元委員 한마디 여쭙보겠습니다. 證人採擇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30日은 정동연 정기용 심재철 김종배 정승화로 기준을 삼았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文東煥 물론 기준이 있지요.

○金文元委員 어떤 기준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본래 原則이 칫토막은 勃發動機에 관련된 사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原因과 動機에 관한 대목을 한다.

두번째는 光州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에 대해서 政府가 어떻게 對處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다 이런 原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野黨便에서는 勃發動機라고 할 때에 政治的인 문제에 強點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기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與黨쪽의 주장은 사실은 勃發 이렇게 된 동기라는 것은 가려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全斗煥 前大統領이 몇차례 이야기한 데에서 그 성격이 규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벌어진 것은 戒嚴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論理를 展開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서로 겹쳐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이런 妥協的인 案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또 밝히려면 며칠 더 씨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면서 對話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나가는 길이 옳겠다 이렇게 幹事會議에서 兩便의 주장이 어긋나기에 이것은 그렇다면 이야기해 보면서 가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結論이 나와서 어떤 입장에 선 사람이 볼 때는 확실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저쪽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文元委員 알았습니다. 4黨 幹事會議 事項을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運營이 되면 까딱 하면 光州特委

열어 놓고 國民들로부터 반축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一例를 들어서 그 당시 光州事態에서 政治적으로 또한 힘이 있고 이런 「네임벨류」가 있고 政治적으로 굉장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한번 모은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光州에서 被害를 당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集中的으로 물어 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날짜를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眞實을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運營上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燦鍾委員 委員長님!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런데 이것이 運營의 妙의 문제인데 無所屬의 경우는 한분이 있으니까 各 政黨에서 의견을 될 수 있는대로 綜合해서 정리해서 幹事會議에서 合意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서 모두 와서 의견을 開陳하게 되면 참 運營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仁坤委員 다르게 아니고요 저도 전적으로 幹事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朴燦鍾委員의 意見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빨리 聽聞會에 의식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올해 나가면서 빨리 終結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지금 證人申請을 해 놓은 것 보면 수백명을 해 왔어요 내가 보기로는 벌써 이미 다 밝혀진 것까지를 三湯四湯 黨略이나 될 위해서 선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證人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간추려 가지고 되도록이면 제가 일전에 3個 원칙을 提案한 일이 있습니다. 신속의 원칙 정확의 원칙 계획의 원칙을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證人도 필요없는 사람은 물론 필요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겠고 30日에 다섯분을 하게 된 배경을 說明을 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시

는 委員들이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說明하자면...

(「그만 되었읍니다」하는 이 많음)

○委員長 文東煥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정리하세요.

金仁坤委員이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든 저렇든 끝내시고 朴燦鍾委員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양해해 주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또 그것이 幹事會議에서도 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고 幹事들이 다시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處理하자고 하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參考的인 말씀은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幹事會議에서 빨리 해 보겠습니다.

○朴燦鍾委員 저는 아까 金文元委員의 原則과 金仁坤委員의 原則에 現場中心의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해서 現場과 관계되는 證人은 現場에서 많이 묻고 集中的으로 하는 방식을 幹事會議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그것이 第2段階로 本格的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第2段階에 들어가면 本格的으로 됩니다.

그러면 별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읍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대로 執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듣겠다고 했는데...

○鄭昌和委員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會議에서 꼭 記錄으로 남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日程과는 關係없는 일이기 때문에 日程이 通過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本委員이 光州特委에 와서 이틀 동안의 聽聞會에 同參을 해서 함께 調整活動에 임했읍니다마는 존경하는 委員長께서 聽聞會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日程이 남아 있을 때에 이러한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委員長께 드리는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정리하는 책임을 가지신 분이데 때로는 그 職位에 대한 것을 착각을 하시고 조금씩 편파적이거나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예를 들면

發言時間같은 것을 統制를 한다든가 制限을 하심에 있어서도 약간 各黨에 따라서 發言者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씩 낮춰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證人마다 할당된 시간을 制限해서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더욱 委員長께서 철저히 지켜서서 時間에 관한 운영 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國民들이 볼 때도 그래도 우리 文東煥委員長이 참 정직하게 잘 한다 이렇게 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 發言 中間 中間에 委員長께서 끼어드시는 부분이 있는데 委員長께서 委員長席에 앉아 보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목까지 차는 문제도 있고 나도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심정이 우려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本委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실 때에는 委員長께서도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을 때는 정리를 하셨다가 司會席을 다른 幹事에게 맡기신 다음에 委員席으로 돌아오셔서 그것을 發言을 하신다든가 하심으로써 委員長의 품위와 이 委員會의 權威를 지켜주시는 일에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저께 우리가 첫날 表決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表決을 할 때에도 좀 더 대화를 가지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3代 國會에 들어와서 최초의 날치기 表決이 있었다는 그것이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光州特委의 委員長으로서의 최초의 13代 날치기 통과의 記錄者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했던 것인데 좀 더 혹시 앞으로 우리 聽聞會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議事日程의 운영관계에서 그러한 의견의 對立이 생겨질 때에는 좀 더 대화를 갖고 시간의 여유를 갖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시면 원만한 會議가 되고 또 委員 상호간의 감정대립이 되어지지 않을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가지 建議兼 그런 것인데 生中繼가 되고 國民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聽聞會이기 때문에 用語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특히 이 光州特委는 아주 國民感情

에 예민한 반응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刺戟적인 用語라든가 또는 아주 刺戟적인 物證 같은 것을 國民에게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國民感情이나 國民和合에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해 나감에 있어 우리가 더 큰 副作用을 남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委員長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辛基夏委員 앞으로 모든 會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을 해 주시라는 同僚委員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會議의 분위기가 자체가 오늘은 모처럼 4黨 幹事끼리 本委員이 報告한 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그것은 決議까지 되었고 나아가서 앞으로 할 문제에 대해서 구태어 記錄에 남기지 않는 懇談會의 형식으로 우리의 의견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참나에 記錄에 꼭 남겨야 하겠다는 發言이 날치기통과 운운하면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光州特委의 特殊性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리한 感覺적인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현 상황에 또한 앞으로의 國會運營이 與野間에 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討論하고 서로 의사를 開陳을 해서 궁극적인 방법으로는 表決의 방법에까지 갈 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與黨에서 與黨意思에 반하면 議席에조차 참여하지 않고 野黨委員들끼리 議事進行을 하고 表決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責任을 光州特委의 委員長이 野黨所屬 委員이라고 해서 委員長에게 責任을 몰아 세우는 이러한 記錄用 發言은 더욱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委員長께서 우리 光州特委의 활동을 좀더 效率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또한 同僚委員들이 懇談會 席上에서 말하자고 했기 때문에 구태어 記錄에 남길 필요가 없이 懇談會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상당히 과장된 發言을 통해서 國會 速記錄에 남기려고 하는 의도는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읍

니다.

따라서 앞으로 本 委員會의 效率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오손도손하게 서로 타협하고 論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는 發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鄭昌和委員 同僚 辛基夏委員에게 제가 꼭 되받아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辛基夏委員께서는 지난번 聽聞會 때도 同僚委員이 얘기하면 되받아치는 그러한 기질이 적 있으신데 그런 것은 서로가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원활하게 하자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發言을 하는 그런 저의가 어디에 있으신지 그렇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委員長이 하실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가 한마디 하고 끝마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이 歷史적으로 중요한 特委의 活動을 公正하게 할까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인 자리가 되면 백사람이면 백사람이 다르게 이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왜 委員長이 그렇게 강하게 이끌지 않느냐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사람인데 그런 것은 와서 저에게 충고해 주시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政黨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말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어떤 政黨에 속한 사람은 그런 發言을 政治적으로 들어달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는냐고 내가 섭섭하게 이야기해도 政治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나한테 와서 政黨인 黨利黨略으로 發言을 하니 이해해 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존경하시면서 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와서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까지 黨利黨略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委員長으로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다른 이야기 없으면 이것으로써 이

會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3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熿 太	辛 卿 植	沈 明 輔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鄭 東 鎬
鄭 昌 和	金 泳 鎭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白 南 治	崔 二 鎬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朴 燦 鍾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 員 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李仁濟	白南治	統一民主黨
〃	張石和	崔二鎬	〃

(11月28日字)